



## 10년 내 국제적 매머드급 메디컬 콤플렉스 건립 추진

연구중심병원, DSC·ACC 확장 등 의료 질 경쟁서 우위 선점  
3년내 첨단의학센터 건립 시작으로 3단계 장기발전계획 가시화



국제적인 수준의 초일류 의료기관을 향한 고대 안암병원의 발걸음이 빨라졌다. 규모의 경쟁에서 벗어나 의료 질의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겠다는 박승하 고대 안암병원장 이하 신입 보직자들의 장기발전전략 마스터플랜 수립이 완료된 것이다. 이번 발전전략에는 그 동안 지지부진했던 첨단의학센터의 건립과 고질적인 외래 및 연구공간 부족, 차세대 연구중심병원 지정과 육성 등 고대 안암병원의 당면과제를 풀어가기 위한 복안이 단계별,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향후 10년, 진료-연구-교육을 아우르는 매머드급 메디컬 콤플렉스를 건립 향한 고대 안암병원의 거침없는 행보가 주목된다.

### ■ 연구중심병원, 외래재편성 통해 미래성장동력 재점화

#### 연구중심병원, 연구부원장 중심으로 적극적, 통합적 추진

2012년 고대 안암병원이 가장 강력하게 추진할 내용 중 하나는 바로 연구중심병원의 지정과 육성이다. 박승하 원장은 이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 표명의 하나로 연구부원장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새로운 직제를 편성함으로써 관련 업무 및 인프라 확충을 적극적이고도 통합적으로 진두지휘하고, 진료 위주의 병원 시스템을 연구-교육 부분까지 균형있게 발전시켜 연구중심형 의료기관을 실현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미 의료진의 연구역량은 연간 고려대학교 SCI급 논문의 70% 가량을 의과대학

교수가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국내 최고수준에 올라있다. 특히 2009년도에 국가지정 임상시험센터에 선정된 후 이듬해 임상연구 윤리성에 관한 국제적인 인증인 세계보건기구 산하 FERCAP 인증을 획득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들을 내고 있어, 연구중심병원을 위한 추진 동력은 충분한 상황이다.

여기에 충분한 시설과 인프라만 보완-융합된다면 더 큰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박승하 원장은 “신의학관이 4월말 완공되면 여유가 생기는 공간에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연구실험실을 만들고 연구 인프라를 대폭 확충할 것”이라며 “단순히 연구성과를 높이는 것을 뛰어넘어 의료의 질을 높이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포괄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 특성화센터 중심 외래재편성으로 진료강화

연구중심병원 지정을 화두로 연구-교육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진료 강화는 외래 재편성을 통해 추진한다. 외래 재편성에는 오는 4월 말 신의학관 완공이 예정됨에 따라 일부 행정부서와 교수 연구실을 이전하고 생기는 여유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예정이다.

외래재편성은 진료과가 아닌 특성화센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현재의 유방센터와 마취통증의학과 통증클리닉을 유방암센터와 통증센터로 확대개편하고, 대장암센터, 갑상선암센터, 척추센터는 기존의 진료과에서 분리해 신규개설할 예정이다.

특히, 신규 센터와 기존 진료과 배치는 질환별로 연계할 예정이다. 예를들어, 신경외과-정형외과-재활의학과-통증센터를 연계한 ‘척추-통증치료’, 소화기내과-대장암센터를 연계한 ‘대장암치료’ 특성화구역을 구축하는 방안이다.

이와같은 특성화구역 구축은 질환별 독립공간을 제공해 특화된 전문병원을 이용하는 듯한 편안함과 전문성을 제공함과 동시에, 진료과별 유기적인 협진을 이끌어 내 의료 서비스까지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국내 최정상급 심혈관센터를 병원급으로 확대하고 응급의료센터도 심정지 응급치료센터로 분야별 특화함으로써 고대 안암병원의 강점을 살려나갈 계획이다.

#### 일일수술센터-통원치료실 확대, 도심형 One-Day Care 실현

외래 재편성과 함께 일일수술센터(DSC)와 통원치료실(ACC)가 대폭 확장된다. 먼저 일일수술센터는 공간을 확장하고 마취통증센터와 통합적으로 공간을 배치함으로써 운영상의 장점을 증폭시키고, 환자편의 향상과 업무의 효율화를 높일 계획이다. 일일수술센터의 경우 지난 몇 년간 안과, 피부과, 이비인후과 등을 중심으로

[2면에 계속]

### 이화재단기금기부 기부내역이벤트

11.09.01	맥스바이오텍	₩ 10,200,000	12.02.08	김재홍, 최경희	₩ 7,500,000
11.09.27	박기현	₩ 5,000,000	12.02.24	정규병	₩ 20,000,000
11.10.04	기능성다당연구소	₩ 9,000,000	12.03.05	2009년 신입교원 장학회	₩ 2,000,000
11.12.08	김태준(39회 동기회)	₩ 10,000,000	12.03.06	정우신	₩ 10,000,000
11.12.08	김재선(학부모)	₩ 10,000,000	12.03.13	심재황	₩ 500,000
11.12.21	이광철	₩ 10,000,000	12.03.08	익명(장학금)	₩ 200,000,000
11.12.22	의과대학 20회 동기회	₩ 67,000,000	12.03.22	박대원	₩ 9,000,000
12.01.25	김해준	₩ 9,000,000	12.03.23	홍순철	₩ 5,000,000
12.01.03	김연희	₩ 12,000,000	12.03.23	김철자	₩ 10,000,000

\* 기간 : 2011년 09월 01일~2012년 03월 23일, 순서는 기부(약정) 일자 기준임



고려대 안암병원은 JCI 인증을 획득한  
세계가 인정하는 가장 안전한 병원입니다.

[1면에 이어]

이용 환자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2011년에는 순환기내과가 전용병상을 별도로 확보하는 등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일일수술센터는 신속함을 요하는 현대의 도시 라이프스타일에 적합한 치료방식으로 환자에게 맞춤형 진료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여유가 생기는 병상을 중증환자 중심으로 운영하는 효과까지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통원치료실의 경우 현재 항암제 투여환자를 동시에 수용하기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어 공간을 확장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동시에 암센터-방사선종양학과-MRI실과 연계된 암 특성화 구역을 구성해 공간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각 부서의 진료협력을 통한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더불어 전용접수 및 수납을 별도 배치하여 환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나아가 암환자 대상 생활습관 관리까지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진료공간으로 발전시키고자 한다.

### 국제수준의 안전성 재인증 → 해외환자유치 기폭제

오는 7월 JCI 재인증 컨설팅이 예정되어 있다. 이번 JCI 재인증 획득에 성공하면, 지난 2008년 첫 번째 인증에 이어 국제 수준의 안전성을 갖춘 병원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함과 동시에 고려대학교의 위상에 걸맞은 글로벌 병원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를 바탕으로 해외환자 유치 및 외국의료기관과의 교류를 활성화 하는 방안도 계획중이다.

고대 안암병원은 첫 번째 JCI 인증 이후 국제진료센터를 개설하며 해외환자유치에 적극 나서왔다. 2011년에는 전년대비 외래환자 200%, 입원환자 77%가 증가하며 글로벌 병원으로서의 면모를 과시했으며, 특히 나이지리아 대사관, 카자흐스탄 국립응급의료센터, 몽골국립대학, 중국 강노국제그룹, KDI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해외 환자 유치에 한층 주력하고 있다. 작년에는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환자유치에 성공하는 쾌거를 이룩했고, 몽골에서도 장기이식을 비롯한 각종 수술 및 치료를 위해 꾸준히 병원을 찾고 있다.

또한, 카자흐스탄 마시모프 헬스센터와 교류확대를 통해 현지 의료진의 임상교육 및 정보교류를 지속적으로 하기로 했으며, 이외에도 순환기내과 흉통 및 부정맥 분야를 비롯해 각 진료과에 동남아를 비롯한 외국 전문의들의 연수요청도 계속되고 있다.

고대 안암병원은 외국인 환자 만족도 향상을 위해 러시아, 몽골 등 국적별 진료 코디네이터를 양성하고, 원내 게시판 및 사인보드를 필요에 따라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등과 함께 병기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해외 입원환자의 경우 대부분 사회 고위층으로 개별 공간의 필요성을 요청함에 따라 VIP병동을 신설하여 병원의 위상을 높일 것이다.



## ■ 12만평 국제적 매머드급 메디컬 캠퍼스 건립

그 동안 의료계는 대부분 신·증축과 병상수 증가에 주력해왔다. 그러나 향후 5~10년 사이에 예측되는 인구감소로 인한 진료수요 감소는 지난친 양적팽창이 오히려 병원을 위기에 빠뜨릴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특히 90년대 중반 미국에서 대형병원들이 실력있는 병원 위주로 재편됐던 사례를 고려해볼 때 우리나라라고 예외가 될 수 없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래서 고대 안암병원은 첨단의학센터 설

립에 앞서 병원의 병상수 증대보다는 특성화된 진료센터의 구축과 절대적으로 열악했던 인프라 보완에 중점을 두고 3기로 나눈 단계별 설립 계획을 수립했다.

### □ 1기 : 3년내 첨단의학센터 완공, 癌치료 메카로



먼저 현재 4층 옆 햇살정원부지에 '1기. 첨단의학센터'를 건립한다. 이 첨단의학센터는 당초 계획을 변경해 現햇살나눔정원 15,000규모에 세워진다. 이미 설계에 들어갔으며, 3년 내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곳은 일종의 암병원이다. 암 종류별 치료센터와 진료과가 들어가고, 별도의 암병동과 검사 및 치료장비들이 모두 투입된다. 첨단의학센터가 완공되고 암 전문 공간으로 특화되면, 암 치료의 전문성을 높이고, 진료과별 협진을 더욱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우수한 교원 영입을 동시에 추진해 진료 역량을 최고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 □ 2기 : 진정한 환자중심 공간, 첨단진료센터



첨단의학센터 설립이 완성되면 20,000평의 고객주차장 부지에 지하철과 연결·개발하여 '2기. 첨단진료센터' 건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곳에는 센터중심의 외래와 지원시설이 주로 배치하며 철저한 환자중심 기반의 의료시설을 갖추게 예정이다. 또한, 지하철 연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편의시설을 대폭 확충함으로써 새로운 병원문화를 조성하고자 계획하고 있다.

### □ 3기 : 미래지향형 질병 예방관리, 첨단라이프케어센터



마지막으로 '3기. 첨단라이프케어센터'가 건립된다. 10년내 건립을 목표로 30,000여평에 신축될 첨단라이프케어센터는 환자와 가족의 통합적 건강관리, 질병의 예방적 관리를 실시하는 미래지향형 의료기관이다. 이곳에서는 특수병동, 의생명과학연구소 등 연계 개설하여 '연구-진료-교육-연구'가 유기적으로 긴밀히 연결되는 토털진료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며,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부, 이공대학, 보건대학뿐만 아니라 인접한 KAIST와 연계한 융합, 복합 연구를 진행해 고대 안암병원이 국내 의학을 선도하는 맹주로 그 위상을 확고히 해 나갈 것이다.

### □ 고려대학교의 새로운 상징, 고대 안암병원 될 것



3단계 사업이 완료되면 병원-의과대학-연구소가 연계된 국제적 매머드급 메디컬 캠퍼스가 구축된다. 진료, 연구, 교육을 총망라하는 12만평의 매머드급 복합의료시스템이 구축되는 셈이다.

이 메디컬 캠퍼스는 의료원뿐만 아니라 고려대학교의 새로운 상징이자 대표 이미지 부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은 그 중심에서 글로벌 고려대학교를 선도하고, 브랜드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향상시킴과 동시에 또 다른 10년, 100년을 기획해나갈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고대 안암병원의 새 얼굴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에 새 바람이 불어옵니다. 3월부터 새롭게 임용된 전임교원 4명과 임상교원 36명이 각 전문분야에서 진료를 시작합니다. 또 안산병원 신경외과 박정울 교수와 성형외과 윤을식 교수가 안암병원에서 진료를 시작합니다. 전임교원은 수많은 유능한 의료진들 중에서도 최고의 술기를 인정받은 재원들입니다. 또한 임상교원들 역시 10년 넘게 의학공부에 매진하며 실력을 키워 당당히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에 교수가 된 우수한 의료진입니다. 앞으로 신입교원들이 보여줄 한층 업그레이드 된 의료서비스를 기대하며, 신입교원을 소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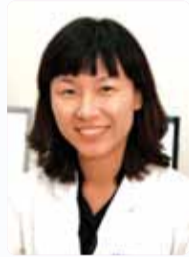
### 전임교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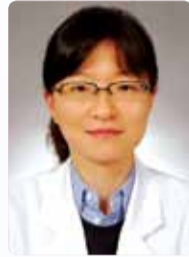
[ 박정울 교수 ]  
신경외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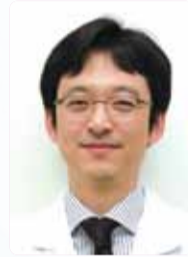
[ 윤을식 교수 ]  
성형외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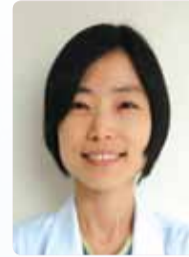
[ 김은선 교수 ]  
소화기내과



[ 윤영경 교수 ]  
감염내과



[ 광정면 교수 ]  
대장항문외과



[ 조장은 교수 ]  
마취통증의학과

### 임상강사



[ 서민호 교수 ]  
소화기내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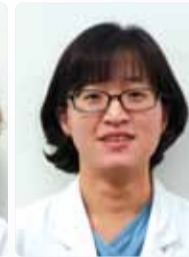
[ 김예지 교수 ]  
소화기내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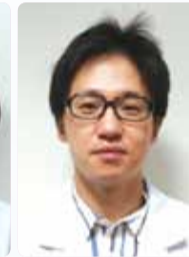
[ 임선영 교수 ]  
소화기내과



[ 박윤지 교수 ]  
소화기내과



[ 김선영 교수 ]  
순환기내과



[ 하태훈 교수 ]  
순환기내과



[ 김수아 교수 ]  
순환기내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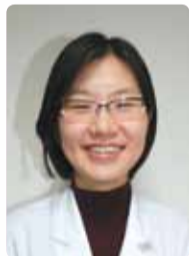
[ 이대인 교수 ]  
순환기내과



[ 이은정 교수 ]  
호흡기내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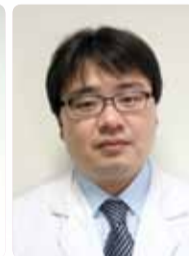
[ 김명규 교수 ]  
신장내과



[ 김혜숙 교수 ]  
혈액종양내과



[ 이석영 교수 ]  
혈액종양내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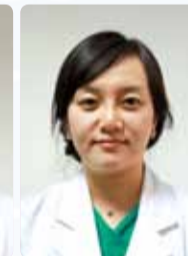
[ 조성일 교수 ]  
위장관외과(상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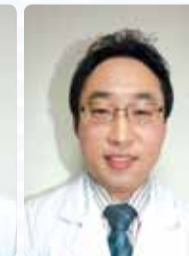
[ 정성원 교수 ]  
간담체외과



[ 이동원 교수 ]  
대장항문외과



[ 유지영 교수 ]  
유방내분비외과



[ 신영수 교수 ]  
정형외과



[ 김태권 교수 ]  
정형외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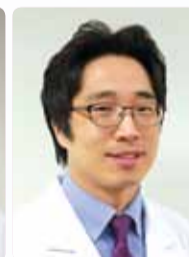
[ 김종철 교수 ]  
신경외과



[ 장서윤 교수 ]  
성형외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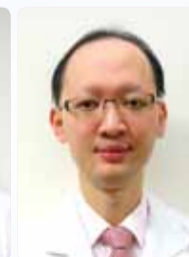
[ 바우어 교수 ]  
소아청소년과



[ 엄영섭 교수 ]  
안과



[ 한병덕 교수 ]  
가정의학과



[ 최인광 교수 ]  
정신건강의학과



[ 배효숙 교수 ]  
산부인과



[ 정예원 교수 ]  
산부인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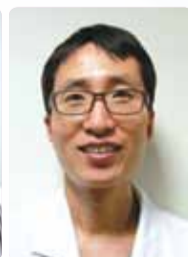
[ 윤형석 교수 ]  
재활의학과



[ 한나연 교수 ]  
영상의학과



[ 황신영 교수 ]  
영상의학과



[ 김경민 교수 ]  
영상의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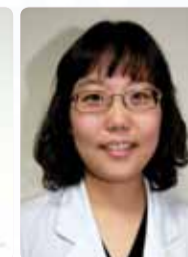
[ 김주연 교수 ]  
진단검사의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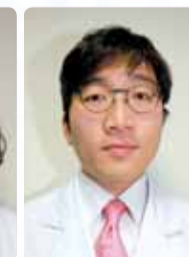
[ 허협 교수 ]  
마취통증의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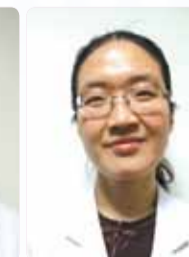
[ 유해선 교수 ]  
마취통증의학과



[ 이정현 교수 ]  
병리과



[ 이의중 교수 ]  
응급의학과



[ 전윤희 교수 ]  
임상약리학과

### 제18회 호스피스회 정기총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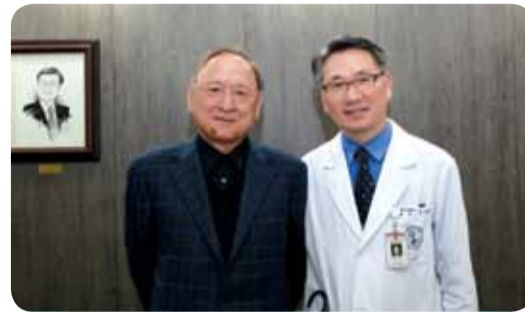
호스피스회(회장 신상원)가 지난 3월 22일 중회의실에서 제18회 호스피스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박승하 병원장, 이기형 진료부원장, 신상원 회장을 비롯해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정기총회에서는 먼저 2011년 활동보고가 이어졌다. 2011년 호스피스회는 자원봉사자 35명을 비롯해 총 400명이 작년 한해 5480건의 봉사를 실시했으며, 이외 923건의 미용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또한, 2012년 예산 심의안 및 활동계획 등에 대해 발표하고, 지난 한해를 돌아보며 앞으로의 활동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그간 고생한 자원봉사자들이 겪었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며,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돼 눈길을 끌었다.

박승하 원장은 축사에서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여러분은 환자의 아름다운 마지막을 위해 사랑과 희망을 함께 전하는 동반자”라고 격려하며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따뜻한 손길로 몸과 마음이 지친 환자들을 더 많이 어루만져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 부정맥 치료 감사합니다, 조중형 고문 1억 기부



부정맥센터(센터장 김영훈)는 3월 7일(수) 조중형 웅진그룹 고문으로부터 세 번째 부정맥 연구지정 기부금 1억원을 전달받았다.

조중형 웅진그룹 고문은 병원측에 지난 2010년 부정맥 연구지정 기부금을 5억원을 약정한 후, 해당년도부터 연간 1억원씩 분할해 기부금을 전달하고 있다.

그는 지난 2006년 심방세동에 걸려 김영훈 교수에게 시술받은 후 건강을 되찾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기부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중형 고문은 “부정맥에 대한 고통과 위험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만큼 환자들에게 보탬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남은 2년간 약정한 금액을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훈 교수는 “환자들의 기부가 헛되지 않게 난치성 부정맥으로 고통 받는 환자들을 위한 치료 연구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 2011 하반기 의무기록 정리 최우수부서는 감염내과



고대 안암병원(원장 박승하)은 지난 28일 본부회의실에서 ‘2011년도 하반기 의무기록 정리 우수 부서’와 ‘2011년도 4/4분기 의무기록 정리 우수전공의’를 표창하고 상장과 상금을 전달했다.

이번 하반기 의무기록 최우수부서에는 감염내과가, 우수부서에는 신경과와 심장내과가 선정됐다. 최우수부서에는 30만원, 우수부서에는 각각 20만원의 상금과 표창이 수여됐다.

이 표창은 2011년 하반기동안 재원 중 의무기록작성율, 월평균 차트 완성률, 기록충실도, 평균재원일수, 전공의 담당 환자수, 교수 서명완성률 등을 종합평가해 이뤄졌다.

이날 감염내과장 김민자 교수, 신경과장 김병조 교수, 심장내과장 조상경 교수가 대표로 수상했다. 또 2011년도 4/4분기 의무기록 정리 우수전공의에는 내과 이재민, 외과 이창현 전공의가 선정돼 각각 상금 30만원과 표창을 전달받았다. 이들은 성실도, 완결도, 다작도 등 전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수상자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한편, 의무기록관리위원회는 의무기록의 충실도를 높이기 위해 그 동안 매년 분기별로 의무기록정리 우수전공의를, 매년 반기별로 의무기록 정리 우수부서를 선정해 표창하고 있다.

### 2011년 임상간호연구논문 발표회 및 직무시험 우수자 포상



전문 간호시대를 표방하며 간호사의 복지, 교육, 사회공헌 부문에 걸쳐 다각적인 사업을 펼치고 있는 간호부(부장 이은숙)가 수준 높은 연구논문으로 다시 눈길을 끌었다.

간호부는 2월 29일 오후 3시 부대병원 8층 대회의실에서 ‘2011 임상간호연구 논문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 발표회는 병원 현장에서 간호사들의 연구의식을 고취시켜 의료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간호부 주관으로 해마다 마련되고 있다.

올해에는 최우수상을 차지한 신생아중환자실의 ‘미숙아 어머니의 녹음된 음성을 통한 칭찬각극이 미숙아의 성장과 미숙아 어머니의 애착에 미치는 효과’ 등 총 7개의 연구논문이 발표됐다.

또한 간호부에서 매년 운영하고 있는 간호사 직무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2011 간호사 직무시험을 함께 개최하여 성적우수자 및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였다.

이은숙 간호부장은 “지난 한 해 동안 병원을 누비며 애쓰면서 논문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신 간호사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임상간호가 더욱 전문성을 갖고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했다.

### 진료의뢰 우수병의원과 공동발전의 길 모색한다



진료협력센터는 진료의뢰 우수병의원을 대상으로 진료과별 간담회를 열어 상생과 공동발전의 길을 모색하고 나섰다.

현재까지 정형외과, 이비인후과, 치과, 가정의학과, 응급의학과 등 5개과 간담회가 순차적으로 개최됐다.

먼저, 이달 초 정형외과 간담회가 열렸다. 이 간담회는 지난 9일 성북구 소재 홀리데이인에서 15개 병·의원장과 본원 교수진 및 직원 15명 등 총 3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정형외과 교수진 소개와 본원과의 공동 발전 방안 등에 대해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이비인후과 간담회가 지난 13일 미아동 현대백화점 홍보실에서 병·의원장과 본원 교수진 및 직원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임기정 이비인후과 교수가 ‘이명에 대

한 약물 치료’를 발표해 참석자들의 높은 관심을 끌어 호평을 받았다.

치과 컨퍼런스는 지난 16일 30여 명을 대상으로 홀리데이인 가빈에서 열렸으며, Dr. Philip L. Millstein 하버드대 교수를 연자로 초청, ‘Occlusion and its impact on dentistry’에 대한 강의를 진행해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그밖에 가정의학과 연수강좌는 지난 25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촌기념관에서 성황리에 종료됐고, 응급의학과 간담회는 지난 28일 현대백화점 홍보실에서 병의원장과 본원교수진 및 직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으며, 개원의와 본원이 서로 상호 발전할 수 있는 협력의 실에 대해 활발한 토론이 진행됐다

각 간담회에서는 본원 의료진 현황과 진료과별 최신 지견을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안 등에 대한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질의 응답시간을 통해 폭 넓은 의견 교환이 이뤄져 서로 간 화합의 장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한편, 진료과별 간담회는 협력 및 진료의뢰 우수병의원들을 대상으로, 최신 현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고대병원의 정기적인 행사다.

병원소식

### 산부인과 이규완·영상의학과 정규병 교수 정년퇴임식 거행



고대 안암병원은 2월28일(화) 오전 8시에 대회의실에서 이규완·정규병 교수의 정년퇴임식을 거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년퇴임을 맞이한 산부인과 이규완 교수, 영상의학과 정규병 교수를 비롯한 김린 고려대의료원 의무부총장, 한희철 의과대학장, 박승하 안암병원장 등 300여명의 교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됐다.

행사는 ▲정년퇴임 교수 약력소개 ▲김린 의무부총장 감사말 ▲한희철 학장의 송별사 ▲박승하 원장의 감사말 ▲감사패 및 기념메달 증정 ▲퇴임사 ▲꽃다발 증정 등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행사 내내 뜨거운 박수로 두 교수의 퇴임을 축하했다.

이규완 교수는 퇴임사에서 “의사의 길로 들어서고 많은 역량을 펼칠 수 있었던 것은 선친

의 가르침과 고려대학교라는 울타리가 큰 힘이 되어 준 것이 사실이다. 그간 많은 도움을 주신 모든 교직원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고 말했다.

정규병 교수는 “고려대병원에 몸 담은 재직 기간 동안 크고 작은 수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많은 것이 가능했던 것은 부족한 저를 도와 함께해 주신 동료선 후배 교수님들을 비롯한 병원식구들 때문이 아니었나 생각해 보게된다” 며 “한편으로 아쉽지만 JCI인증 등을 계기로 크게 성장하고 있는 병원을 응원하면서 떠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고 퇴임사를 전했다.

김린 의무부총장은 “존경하는 두 분 교수님의 학문적인 열정과 더불어 훌륭한 인격은 후배 교수 및 제자들에게 많은 귀감이 되어 왔으며, 의학적인 지식 뿐만 아니라 인술을 갖춘 의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후학들을 지도해 오셨다” 라며 퇴임 교수에 대한 아쉬움을 전했다.

한편, 이규완 교수는 고대의료원 기획조정실장, 대한산부인과내시경학회 회장, 대한의학회이사회 이사장을, 정규병 교수는 대한복부영상의학회장, 한국건강관리협회 이사, 대한의료영상진단협회장 등을 역임해 현재까지도 끊임없는 열정과 노력으로 국내·외 의학발전을 이끌어 가고 있다.

### 행복한 동행과 함께, 협심증·심근경색 극복



홍통클리닉(소장 임도선)은 지난 2월 23일(목) 오후 1시 8층 대회의실에서 협심증 및 심근경색 극복 프로젝트 ‘행복한 동행’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홍통클리닉과 사단법인 심혈관건강증진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것으로 환우들이 협심증과 심근경색에 대한 질병정보를 공유하고,

질병을 극복한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심장병 치료에 도움을 주고 더 나아가 심장병 예방에 앞장서고자 실시했다. 300여명의 심장병 환자 및 가족들과 질병에 관심을 갖고있는 일반인들이 모여 열띤 호응을 보여줬다.

문소리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는 ▲‘행복한 동행’ 발대식, ▲KBS 개그콘서

트 ‘감사합니다’ 팀의 공연 및 홍보대사 위촉식 ▲황희숙 영양사의 ‘심장질환 예방의 식요법’ 강의 ▲순환기내과 박재형 교수의 ‘협심증의 예방과 치료’ 강의 ▲심혈관질환 수기발표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 발족한 ‘행복한 동행’ 은 환우, 가족, 그리고 질병에 관심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향후 심장질환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지속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든 모임으로 앞으로 음악회, 건강강좌 등의 행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KBS 개그콘서트 ‘감사합니다’ 팀이 홍보대사로 위촉되어 협심증·심근경색과 관련된 홍보에 앞장설 것을 약속했으며, 더불어 ‘행복한 동행’ 이 더욱 대중적이고 재미있는 모임이 될 것임을 기대하게했다.

홍통클리닉 임도선 소장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다양한 행사를 해나갈 것이다.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건강한 삶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서로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고 말했다.

### 사랑담은 사탕으로 힘내세요 KUMC



친절리더는 지난 3월 14일(수) 화이트데이를 맞아, 오전 8시부터 내원객과 출근하는 교직원들에게 사탕을 나눠주는 행사를 가졌다.

‘사랑해요 KUMC, 힘 내세요’, ‘사랑해요 KUMC, 고맙습니다’ 피켓을 들고 웃으면서 사탕을 나눠주는 친절리더들의 모습에, 병원을 찾은 내원객과 출근하는 교직원은 뜻밖의 선물인 듯 기뻐했다.

혈액검사를 위해 아침 일찍 병원을 찾은 김성복(51)씨는 “저녁부터 금식을 하고 피검사를 위해 병원에 오느라 무척 힘들었는데, 밝은 웃음과 달콤한 사탕을 받게 되서 기분이 좋아졌다.”며 “피검사를 마치면 맛있게 먹고 힘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4월 행사 계획

#### 간질(뇌전증)의 올바른 이해

일시 : 4월 18일(수) 오후 2시  
 장소 : 8층 중회의실, 대상 : 뇌전증 환자 및 보호자  
 내용 : ▲간질(뇌전증)이란 무엇인가? ▲간질(뇌전증)의 약물치료 ▲생활습관관리 ▲스트레칭 밴드를 활용한 건강체조  
 문의 : 010-3821-98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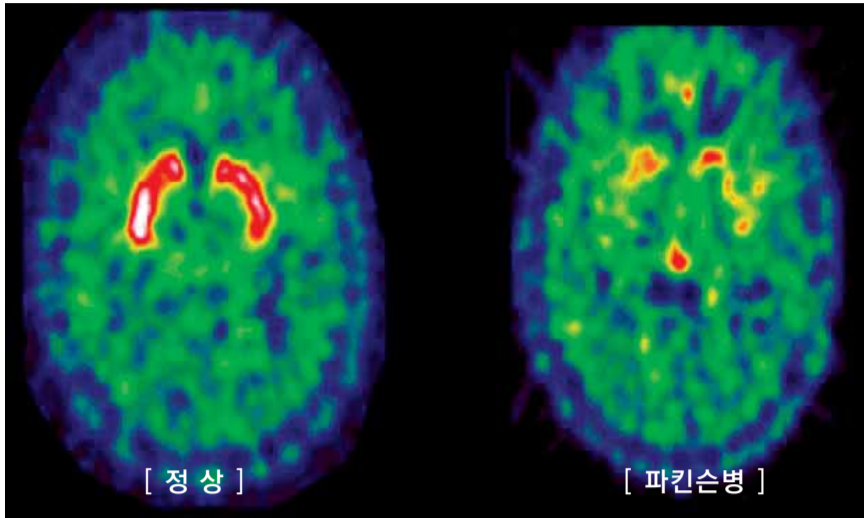
#### 소프롤로지 분만교육

일시 :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12시  
 장소 : 8층 소회의실  
 대상 : 임신 30주 이상의 산모  
 문의 : 02)920-5639

#### 당뇨 교육

일시 : 매주 금요일 오후 2시~3시 50분, 장소 : 3층 당뇨센터 내 당뇨교실  
 내용 : 첫째주 - 당뇨병의 정의와 진단, 당뇨병의 전반적인 식사지침, 올바른 자가 혈당측정법과 발관리  
 둘째주 - 당뇨병의 치료(약물요법), 식품교환표를 이용한 식단작성과 식사계획, 약물요법  
 셋째주 - 당뇨병의 합병증, 합병증 예방을 위한 식사지침, 당뇨병 관리에서 심리적 요인의 중요성과 사회복지정보  
 넷째주 - 자가관리, 외식시의 메뉴선택방법, 당뇨와 운동  
 문의 : 02)920-5394

## 60세 이상의 노년기 떨림, 경직, 보행장애 등이 나타나면 파킨슨병 의심해야



파킨슨병은 알츠하이머 치매 다음으로 가장 흔한 퇴행 뇌질환이다. 주로 노인층이 많이 걸리며, 우리나라도 노령 인구가 늘면서 발병률도 높아지고 있다.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 60대 이상 인구의 1% 내외가 이 병에 걸린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파킨슨병은 뇌 깊숙이 위치한 흑색질(substantia nigra)이라는 부위의 신경세포가 서서히 파괴되는 중추신경계 질환이다. 흑질에 있는 신경 세포들은 도파민(dopamine)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데 이 물질은 운동을 조화롭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신경 회로에 유통유 같은 역할을 한다. 도파민이 정상 수준보다 60-80%이상 줄어들면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초기 증상이라도 이미 병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다. 주로 팔 다리의 떨림증(tremor), 사지의 관절이 뻣뻣한 경직(rigidity), 몸동작이 느려지는 서동증(bradykinesia) 등의 이상 운동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 ◎ 파킨슨병의 진단

진단은 전적으로 병력과 신경과 의사의 진찰에 의해 이루어지며 진단에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파킨슨 병을 확진할 수 있는 혈액 검사나 방사선 검사 방법 등은 없다. 하지만 뇌 MRI촬영이 다른 질환들과의 감별 진단에 도움을 주며, 최근에는 18F-FP CIT PET이라는 영상 촬영 장비로 진단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 파킨슨 병을 완치시키는 치료법은 없으나 증상을 상당 기간 동안 조절하여 큰 문제없이 일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치료가 가능하며, 완치를 위한 다양한 방법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아울러 파킨슨병이 만성적으로 서서히 진행되는 질병인데다 그 진행 속도나 양상이 개인마다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신경과 전문의에게 꾸준한 진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 ◎ 파킨슨병의 발생빈도

파킨슨병은 남자, 여자에서 비슷한 빈도로 발생한다. 대부분 첫 증상은 60세 전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40세 미만에서 발생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파킨슨병의 일반적인 발생 빈도는 60세 이후 인구 중 1% 정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3년 처음으로 안산 지역 유병율을 조사한 결과 인구 1,000명당 3.7명이 파킨슨병 특히 60세 이상에서는 100,000명당 1,473명이 파킨슨병에 해당했다고 밝혀진 바 있다.

### ◎ 파킨슨병의 증상들

파킨슨 병 환자에서는 매우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난다. 전형적인 3대 증상에는 진전(떨림), 경직증, 그리고 서동증(움직임이 느린 것) 등이 있으며 이런 주 증상들은 균형, 자세, 보행 장애 등의 다른 증상들과 함께 나타날 수 있다.

**진전** : 파킨슨병에서 보이는 진전은 안정시 나타나는 유형으로 대개 느리고 규칙적이다. 안정시 떨림이란 환자가 손떨림에 관심을 갖지 않고 다른 일을 하거나 다른 생각에 빠져 있을 때 나타나는 떨림이다. 이러한 떨림은 파킨슨 병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한쪽 손에서 발생하며 이후 병이 경과하면 반대편 손에서도 나타나게 된다. 발이나 다리 등에서도 진전이 나타나게 되는데 대체로 초기 증상이 나타난 쪽에서 나타나게 된다. 입술이나 턱이 떨리는 경우도 있으며 훨씬 드물지만 머리카락이 떨어지기도 한다.

**경직증** : 경직증이란 휴식시나 관절 운동 시 느끼는 몸통이나 목, 사지의 뻣뻣함, 즉 근육의 긴장도 증가를 의미한다. 이 부자연스러운 느낌은 종종 관절염이나 경추나 요추 질환

으로 오인될 수 있는 증상이며, 근육의 통증을 잘 유발하게 된다.

**서동증** : 서동증이란 느린 움직임이란 뜻으로 파킨슨 병의 특징적 증상의 하나이다. 서동증은 꽤 여러 가지 현상을 나타내는 광의의 단어로 눈 깜박임이 줄어들어서 나타나는 얼굴 표정의 감소, 어떤 일을 시작하기 힘들어 하는 현상, 미세 운동 장애(단추를 끼우고 과일을 깎는 일 등)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침대에서 돌아눕기 힘들고 글씨 쓰기가 어려워지는 것(글씨의 속도가 느려지고 크기가 작아짐)도 서동증의 하나이다. 서동증은 진행될수록 환자의 운동이나 일상 생활을 크게 제한하는 증상이지만 약물치료에는 비교적 잘 반응하는 증상이다.

**보행장애** : 보행장애는 병의 초기에는 아주 경미하게 나타나서 큰 불편함을 초래하지 않는다. 자연스러운 팔의 휘저음이 줄어드는 것이 초기 소견이다. 병이 진행되면 보행 속도가 느려지고 보폭이 짧아지며 종종 걸음이 나타난다. 이러한 보행의 불안정성 때문에 환자들은 때때로 앞으로 쓰러질 듯 짧은 걸음으로 종종 걸음을 치는 경우가 있다.

**균형 장애와 자세 유지 장애** : 이 증상은 어느 정도 진행된 파킨슨 병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며 다른 모든 증상들보다 가장 견디기 힘든 증상이다. 환자들은 자신의 균형 감각이 소실되었음을 이야기할 때 흔히 '어지럽다'고 표현한다. 안정적이고 곧은 자세를 유지할 수 없고 넘어짐에 대비한 적절한 행동을 취할 수 없으면 결국 쓰러지게 된다. 가볍게 뒤에서 당기기만 해도 환자들은 여러 발자국을 뒤로 물러서며 간신히 균형을 잡거나 쓰러지게 된다. 따라서 지팡이나 워커 등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보조기구가 필요하게 되며 중국에는 휠체어가 필요하게 된다.

이 밖에 이차적 증상들로 언어장애, 연하장애, 침흘림, 지루성 피부염, 발목부종, 시각장애, 체중감소, 빈뇨와 긴박뇨, 현기증, 저림증, 그리고 우울증, 수면장애 등 정신과적 장애에 이르기까지 대단히 다양한 증상들이 있으며 치료과정에서도 드물게 신체 어느 부분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춤추듯 움직이는 '이상운동증(일명 무도증)' 이 발생하기도 한다.

### ◎ 파킨슨병의 약물치료

1960년대까지 파킨슨병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약제는 항콜린성 약물이었다. 항콜린성 약물은 도파민 신경세포가 소실됨에 따라 도파민의 양이 줄어들며 정상 운동활동에 필요한 억제성, 흥분성 신경전달물질의 균형이 깨진 것을 일시적으로 원래대로 되돌려 놓는다. 그 이후 혈액에서 뇌로 흡수되어 뇌 안에서 도파민으로 변환되는 레보도파가 발견되어 많은 환자들에게 수년 동안 증상을 개선시키는 획기적 발전을 가져왔다. 그러나 레보도파의 장기 투여 시 '불안증', '이상운동증', 그리고 약물 작용시간이 점점 짧아지는 'wearing-off' 등이 나타나게 되어 약물을 투여받는 환자의 절반 정도에서 그 효과가 격감된다. 그 이후로 이러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도파민 효현제들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으나 그 효과는 도파민 제제들보다 적게 나타난다. 하지만 현재까지 개발된 파킨슨 병 약제들은 병을 완치시킬 수 없으며, 완치보다는 일상생활에서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는 데 치료의 목적이 있다.

### ◎ 파킨슨병의 수술적 치료

파킨슨병의 수술적 치료법은 일반적으로 약물치료에 반응을 보이지 않거나 오래동안 약물 치료를 시행하여 약물에 대한 효과가 감소된 경우 혹은 치료 약제에 의한 부작용이 발생되는 경우를 고려해 볼 수 있으며, 최근 기초의학 연구의 발전과 더불어 수술 방법 및 수술 기구의 발달로 그 치료효과와 안정성이 많이 개선되었다.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는 수술법은 뇌심부 자극술(Deep brain stimulation)로서 뇌의 전극을 꽂아 전기 자극을 주어 증상을 완화시키는 방법으로 이를 통해 많은 진행된 파킨슨병 환자들이 도움을 받고 있다. 영구적으로 뇌를 파괴하지 않고 언제든 전기 자극을 끊으면 원래대로 돌아올 수 있어 부작용을 제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고대 안암병원 신경과 이찬녕 교수는 "많은 파킨슨병 환자들이 처음에는 노환이나 다른 질환인 줄 알고 방치하다가 병세가 상당히 진행된 뒤에야 병원을 찾아 매우 안타깝다"며 "파킨슨병도 조기 진단 및 치료로 증상을 조절하면 대부분 일상 생활이 향상되어 어느 정도 정상생활을 할 수 있으므로, 증상이 나타나면 외면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바로 병원을 찾아 정확히 진단하고 적절한 치료를 시작해야한다"고 말했다.

도움말 | 신경과 이찬녕 교수



이찬녕 교수

## 아프리카 의료봉사와 학술대회를 다녀와서

글: 핵의학과 최재걸 교수



지난 2012년 2월 1일부터 9일까지 아프리카 짐바브웨와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의료봉사 겸 의학학술대회를 다녀왔다. 이번 의료봉사 겸 학술대회는 아프리카 미래재단과 경기도의 주관으로 열린 것으로 고대 안암병원에서는 외과 박관태 교수와 내가 함께 참여했다.

의료봉사는 짐바브웨의 수도 하라레 근처 시골지역에서 있었다. 예상대로 의료 환경은 매우 열악했고, 이로 인해 질병에 노출된 환자가 많았다. 특히, 들일과 집안일의 고된 노동과 스트레스가 원인인지 가슴의 통증과, 허리, 무릎, 다리의 통증을 호소하는 여성들이 많았다. 30여년 전의 우리나라에서 흔히 보던 우리의 어머니들을 생각나게 하는 모습이었다.

사실, 하루 동안의 의료 봉사로 이들의 위생상태가 나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들의 의식과 환경이 개선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것이 이들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가 전해 주는 약들이 고단한 생활에 작은 필요 하나가 채워짐으로 한국 사람들의 사랑을 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아쉬운 만남을 뒤로한 채 우리는 남아프리카공화국에 한국인의 정(情)을 전하기 위한 발걸음을 서둘렀다.

이곳에서는 에이즈로 인한 고아들을 대상으로 축구의 보급을 통해 봉사를 하는 Football Acts 29와 경기도청, 아프리카 미래재단과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등이 함께한 의료봉사를 실시했다. 봉사는 흥명보 축구재단이 축구장을 기증한 프레토리아 근교의 학교에서 진행됐다. 초록빛 잔디의 건강한 기운을 받아서일까. 우리는 200여명의 환자들을 진료하고 함께하면서 피곤함을 잊은 채 마음까지 풍요로워지는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진료하는 내내 환자들의 얼굴에서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고 오히려 이방인의 방문을 신기해 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 보는 이의 웃음을 자아냈다.

봉사 일정과 함께 학술대회도 진행됐다. 이번 한국-짐바브웨 학술대회는 'Multidisciplinary

Approach to Medical Management' 를 주제로, 한국에서는 5명의 대학교수 및 종합병원의 의사가 참여했으며, 특별히 내가 짐바브웨 의사회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의학학술대회를 주관하여 준비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번 학술대회를 위하여 이곳 의사협회(ZiMA)에서 2000명 수용 규모의 회의장에서 학술대회를 준비하기도 했다.

학회가 개최되자 200여명의 짐바브웨 의사들이 등록해 한국 선진 의학에 대한 현지의 높은 관심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학회에서는 전반적인 한국의 발전된 의료를 소개하고 폐암의 영상진단, 신장질환, 자궁경부암, 신경계 기초연구분야 등에 대한 최신 지견을 강의했다. 이후 상호 협력방안에 대한 토론의 시간을 가져 서로의 의견을 공유했다.

특히, 학술대회를 성황리에 마치자 다시 방문해달라는 짐바브웨 의사들의 요청이 빗발쳐 준비한 일원으로서 큰 보람을 느꼈다. 이번 2012년 8월15-19일까지 짐바브웨 의사회에서 주최하는 가장 큰 연례 의학학술대회가 빅토리아폭포에서 열리는데 이 학술대회에 한국에서 참가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다. 한국의 의료진이 아프리카에 관심을 갖고 많이 참여할 수 있었으면 한다.

아프리카하면 전쟁, 기근 그리고 부패 등으로 인식되어 있고 아직 우리에게서 멀게 느껴지지만, 이들의 역사의 아픔을 이해하고 마음으로 다가가면 매우 가깝게 느껴진다. 사하라 남부 아프리카는 정치적으로 비교적 안정되어 있고 부존 자원과 기후 등을 볼 때 의식 개혁과 체계적인 자본의 지원이 있다면 발전할 수 있는 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다. 짧은 시간 안에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우리나라의 경험을 전해줄 수 있고 우리의 도움을 바라는 많은 부분이 있다. 이미 말라위에서는 우리나라의 독지가가 기증한 대양누가병원과 간호대학이 설립되어 운영 중에 있고,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에이즈와 말라리아 예방을 위하여 우리나라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매우 큰 감명을 받았다.

선진 기술과 시스템의 습득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강점을 잘 살려서 저개발국들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도움을 주는 것도 중요하다. 고려대학교 의료원도 이런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갖추고 있다고 생각된다.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아프리카에 지금 우리가 도움의 씨를 뿌림으로써 그것이 50년 100년 후에 우리의 후손들에게 큰 보답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



## 개원 70주년 기념, 키나발루를 향하여

글: 조규은 원내기자(종합건강진단센터)



서울에서 4,000km나 떨어져 있는 동남아시아 최고봉 말레이시아 Mt. 키나발루(4,095.2m). 원주민 카다잔 족의 용어인 "아끼 나발루(죽은자들의 영원한 안식처)"에서 유래 된 이름이다. 그 키나발루를 왜 죽은자들의 영원한 안식처라 부르는지 확인하러 인천공항을 출발하여 5시간이 넘는 시간을 날아 떠났다.

이번 해외 산행은 고려대학교 의료원 산악회에서 개원 70주년을 맞아 1년에 걸쳐 기획한 것으로서 전문산악인을 포함한 직원 및 가족으로 구성된 24명이 참여했다.

키나발루의 본격적인 등정은 라반라타 산장에서 시작된다. 이곳에서 정상까지 산행 코스는 7.9km 총 9시간이다. 키나발루 등반 패턴은 라반라타 산장에서 1박을 하며 고소 적응을 거친 뒤 태평양에서 솟아오르는 일출을 정상에서 맞기 위해 새벽에 출발하는 것이다. 우리도 새벽 2시 40분 22명의 대원들이 일렬로 줄지어 늘어서 정상 등정을 시도했다. 조금 전까지 주위를 환하게 밝히던 하늘의 달님은 어디로 갔는지 달무리와 함께 사라져 버리고 시커먼 구름만이 덮고 있으나 비를 뿌리지는 않고 있어 산장을 나서는 발걸음을 땀 수 있음을 다행이라 생각하며 정상을 향했다.

3,668m 사야사야 체크포인트에서 출입카드의 번호와 등반 신고 명단을 체크했고, 새벽 5시가 넘어서 팀폰게이트에서 8Km 지점을 통과하니 이제 정상이 코앞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정상(로우봉, 로우 피크 4,095.2m)엔 기념촬영을 하는 등산객이 많았다. 다행히 바람이 잔잔

하여 따뜻한 물과 커피를 마시며 여유를 갖고 기다릴 수 있었고, 잠시 후 우리도 정상 꼭대기를 점령하여, 단체 및 개인기념사진을 찍었다. 안타깝게도 일출은 보지 못했으나 서서히 동이 터 오르며 주위 풍경이 보이기 일행들로부터 탄성이 터지기 시작했다.

하산 길은 널따랗고 완만한 암반을 따라 하산하는 길이라 모두들 즐겁게 사진을 찍어가며 내려왔다.

잠시 후에는 당나귀 귀봉 옆 구름 속으로 해가 솟았는지 옆으로 늘어선 구름 띠를 아름답게 채색했다. 한참 아래 펼쳐진 운해를 감상하고 주변 풍경을 사진에 담아가며 오른쪽 뽕족이 솟아있는 남봉의 유혹을 뿌리치고 사야사야 체크 포인트에 도착했다. 오를 때는 어두워서 아무 생각이나 느낌이 없이 올랐을 절벽 지대에서 로프를 잡고 조심하며 내려서니 이후 산길은 숲속으로 이어지고 아무 조망이 없다. 계속되는 계단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심하며 하산했다. 하산 길 내내 퍼붓다 그쳤다는 반복하는 빗속에 멤페닝 쉼터, 로위 쉼터, 갈슨 폭포 등을 거쳐 드디어 하산 완료 지점인 팀폰게이트(1,866m)에 도착하며 공원본부에서 발행해 주는 등정증명서를 받고 뿌듯한 마음으로 동남아시아 최고봉인 키나발루 등반을 마무리했다.

이번 해외 원정 산행은 그동안 준비과정에 있어 고된 고산 훈련과 산악 활동으로 참가 회원들의 무사 산행으로 이어졌고 개원 70주년을 기념으로 보다 더 무궁한 의료원 발전을 염원하는 직원들의 뜻을 기리는 기획 산행이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컸다. 🇰🇷

### <레이시아 Mt. 키나발루>

일 시 : 2012. 2. 8. ~ 12(4박 5일)  
 산 행 지 : 말레이시아 키나발루(4,095.2m 말레이시아 사바주 보루네오섬 소재)  
 동 행 자 : 고산회(고려대학교의료원산우회) 박창현 회장 등 23명과 전문산악인 1명(가이드)  
 등반코스 : 메실라우 게이트-라반라타 산-키나발루 정상(로우 피크)-라반라타-팀폰 게이트(왕복 19.2Km)

